

비대면 스테디로 시간 아끼고 인턴 경험 쌓기 '안간힘'

취준생들, 하반기 채용 앞두고 변화된 트렌드 적응 위해 고심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면접 준비...기업 인턴십 정보 파악 분주

임씨는(여·27·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최근 광주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은 기뻐할 수 없다. 최종 면접(7월 25일)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씨는 필기시험을 치르자마자 면접 준비를 위해 비대면 스테디 그룹을 만들었다. 엔데믹이지만, 코로나 당시 인기를 끌었던 비대면 스테디가 시간을 활용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임씨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기에 외출 준비와 이동하는 시간을 아껴 공부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 스테디를 하면 점심값, 교통비 등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고 웃어보였다.

대학 졸업을 앞둔 조진화(27·서구 삼촌동)씨는 최근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조씨는 올해 한전KPS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인턴 경험이 없어 취업에 실패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조씨는 한전KPS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3개의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지만, 올해 초 다른 기업의 인턴십 신청에서 떨어지면서 인턴경험이 없는 취준생이 됐다. 조씨는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 실무 경험 없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기업들이 경력직 대신 경력신입을 뽑고 있다"고 한숨을 내뿔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고물가까지 겹쳐 멈춰진 취업시장을 돌리기 위해 광주·전남 취준생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대기업의 하반기 채용이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취준생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1초라도 아끼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트렌드에 맞춘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9급 국가직 공무원 최종합격자가 발표됐고, 이번달 내로 9급 지방직 공무원 면접과 7급 국가직 공무원 필기시험이 예정돼 있다. 공무원 채용 뿐만 아니라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공기업들도 6~7월 시험·면접 하반기 취업일정을 거쳐 8월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함에 따라 광주·전남 취준생들은 곳곳에서 스테디그룹을 만들어 취업 문턱을 넘기위해 애를 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했던 지난 3년 동안 유행했던 비대면 스테디를 이용하려는 취준생들이 많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만나 스테디를 하기 어려워 줌, 스카이프 등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했던 것이 엔데믹 이후에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취업 면접을 본 안태환(29)씨는 면접 준비 과정에서 비대면 스테디를 이용했다. 안씨는 "비대면 스테디를 하면 외출을 할 필요가 없어 외모를 꾸미지 않아도 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 취준생들은 최근 변화하는 기업의 채용변화에 따라 취업준비 과정을 맞추고 있다. 취업관련 포털사이트인 '인크루트'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대졸 신입 채용결산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인턴 경험이 있는 취준생을 채용하는 비율이 급상승(대기업은 인턴 채용

2021년 11.8%→2022년 30.4%, 중견기업 6.3%→16.2%)였다. 기업들이 유사 업무 유경험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학 졸업예정자, 취준생들은 취업을 위해 각 기업들의 인턴십 운영 정보부터 찾아보고 있다. 이들은 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형 인턴에 지원하거나,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원하는 기업에서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 전환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턴십 등 업무 유경험자를 선호하는 채용 경향에 취업을 희망하는 광주·전남 사회초년생 사이에서는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인턴 경험까지 갖추려는 경쟁을 또 겪어야만 한다는 이유에서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해 직장생활을 꿈꾸던 준비생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720m 왕복 4차로 신설

광주시, 내년 하반기 착공...공사비 220억 늘어난 520억

광주시가 풍암교차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차도 신설 계획을 추진 중(2022년 8월 8일자 광주일보 7면)인 가운데 지하차도 노선에 대한 초안이 잡혔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 사업'의 핵심인 지하차도 노선의 초안이 결정됐다. 최소 52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광주시 서구 매일동 농수산물유통단지 앞 사거리부터 풍암교차로까지 2개 교차로에 걸쳐 720m 길이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안이다. 광주시는 당초 지난해 8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할 때 시비 300억원을 투입해 길이 800m의 지하차도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물가와 자재비 등을 고려해 예산 220억원임을 늘렸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이번 안대로 지하차도를 만들 경우 하루 4만 1837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풍암교차로 평균 지체 시간은 기존 312.7초에서 72.0초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행속도·시간, 통행자

유도 등 도로의 질적 운행상태를 가리키는 '서비스 수준'도 최하위 수준인 기존 FF 등급에서 E 등급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풍암지구 입구 교차로도 평균 지체 시간이 204.6초에서 59.6초로 감소하고, 서비스 수준이 E 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노선 선정 과정에서는 농수산물유통단지부터 풍암교차로, 풍암지구 입구 교차로까지 3개 교차로에 걸쳐 1148m 길이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방안, 농수산물유통단지 입구 교차로까지 4개 교차로를 통과하는 1465m 지하차도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비용 및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오는 8월 중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내년 1월 안팎으로 최종보고회를 열어 지하차도 설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착공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으며, 완공 및 개통은 오는 2027년 이뤄질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초복 음식 위생점검
초복을 하루 앞둔 10일 광주시 북구 청 직원들이 일곡동의 닭·오리 식육포장 처리장에서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나주 고막원역 호남선 상행선 임시선로 개통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구간인 나주시 다시면 고막원역의 호남선 상행 운행선이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임시선로로 변경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 관리단은 10일 고막원역에 호남선 상행선을 우회하는 임시선로를 건설 및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곳을 지난 첫 KTX 열차인 목포~행신 KTX도 안전하게 임시 선로를 통과했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호남선 상·하 본선을 고속선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이뤄지는 동안 공사 구간을 우회하기 위해 신설한 1448m 임시 선로다. 고막원역을 경유하는 열차들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임시 선로를 이용해야 한다. 코레일은 오는 25일 고막원역 내 호남선 하행선도 임시 선로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유기동물 분양 전 '임시보호' 해 주세요

광주시동물보호소 프로젝트

광주시동물보호소(보호소)가 개소 이래 처음으로 '시원한 임시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시보호는 버려진 애완동물을 분양할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유기동물이 하루 최대 10마리 까지 입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보호소 내 동물 두수 조절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입양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소 3개월로, 만약 사전에 종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소에 알리면 된다. 하지만 이후 보호처가 정해질 때까지는 최소한의 보호를

해야 한다. 임시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나, 보호소 예방접종 기간이 겹칠 시에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임시보호자는 2주에 한번씩 임시보호 근황이 담긴 '일보일지'를 업로드 해야 한다. 인스타, 트위터, 광주동물보호소 홈페이지 등 방법은 다양하다. 임시보호 대상 동물은 총 27마리의 유기견이다. 나이는 6월경부터 9살까지 다양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동물보호소 공식 인스타그램(@kcanimal_gwa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시보호를 희망 하는 이들은 광주동물보호소(062-571-2808)에 문의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지능형 횡단보도 시스템 조성

광주 남구, 내달 31일까지

광주시 남구가 지난 3일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능형 횡단보도 시스템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남구는 다음 달 31일까지 총 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14곳에 보행자 알림이 8개, 과속경보표지판 10개, 음성안내보조장치 8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보행자 알림이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다. 먼저 지능형 CCTV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감지한 뒤 LED전광판과 스피커 음성으로 운전자에게 주의할 것을 안내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023년도 여행은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에서**

고창읍성

고창군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풍요롭게 찬란하게